

미 대선 기점 SPLG 투자 시 수익률 변화 백테스팅 보고서

▲ 얇은 금융경제 지식으로 인한 오역이 있을 수 있음.

I. 실험 동기

2024년 11월 5일, 미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 후의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궁금해졌고, 자연스레 이전 <트럼프 / 바이든> 당선 직후의 S&P500 지수 변화가 궁금해지게 되었다.

미국이기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우상향함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1. 두 대통령 시기 S&P500의 구체적인 상승폭을 비교해보고자
2. 이번 대선에서의 당선결과에 따른 S&P500 가격변화와 이전 대선들의 가격변화가 관련이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 자료들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3. 마지막으로 트럼프 / 바이든 당선 직후 S&P500 지수추종 ETF인 SPLG에 1년 간 투자하는 전략 백테스팅 시 각각의 투자수익률이 궁금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II. 사전지식 정리

- S&P500 :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며, **인덱스 펀드의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이다.
 - SPY : 대표적 S&P500의 ETF, 240821 기준 1주 당 약 559 달러 = 약 75만 원
 - SPLG : SPY보다 늦게 출시된 ETF. 보수가 SPY보다 저렴하며, 1주당 가격이 낮다. 연간 수익률은 동일하다.(S&P500을 추종하므로) 240821 기준 1주 당 약 66 달러 = 약 8만8천 원
- **인덱스 펀드**는 특정 시장 지수를 추종하여 시장 평균 수익을 목표로 하고, **패시브 펀드**는 시장을 넓게 추종하여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한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능동적인 관리를 통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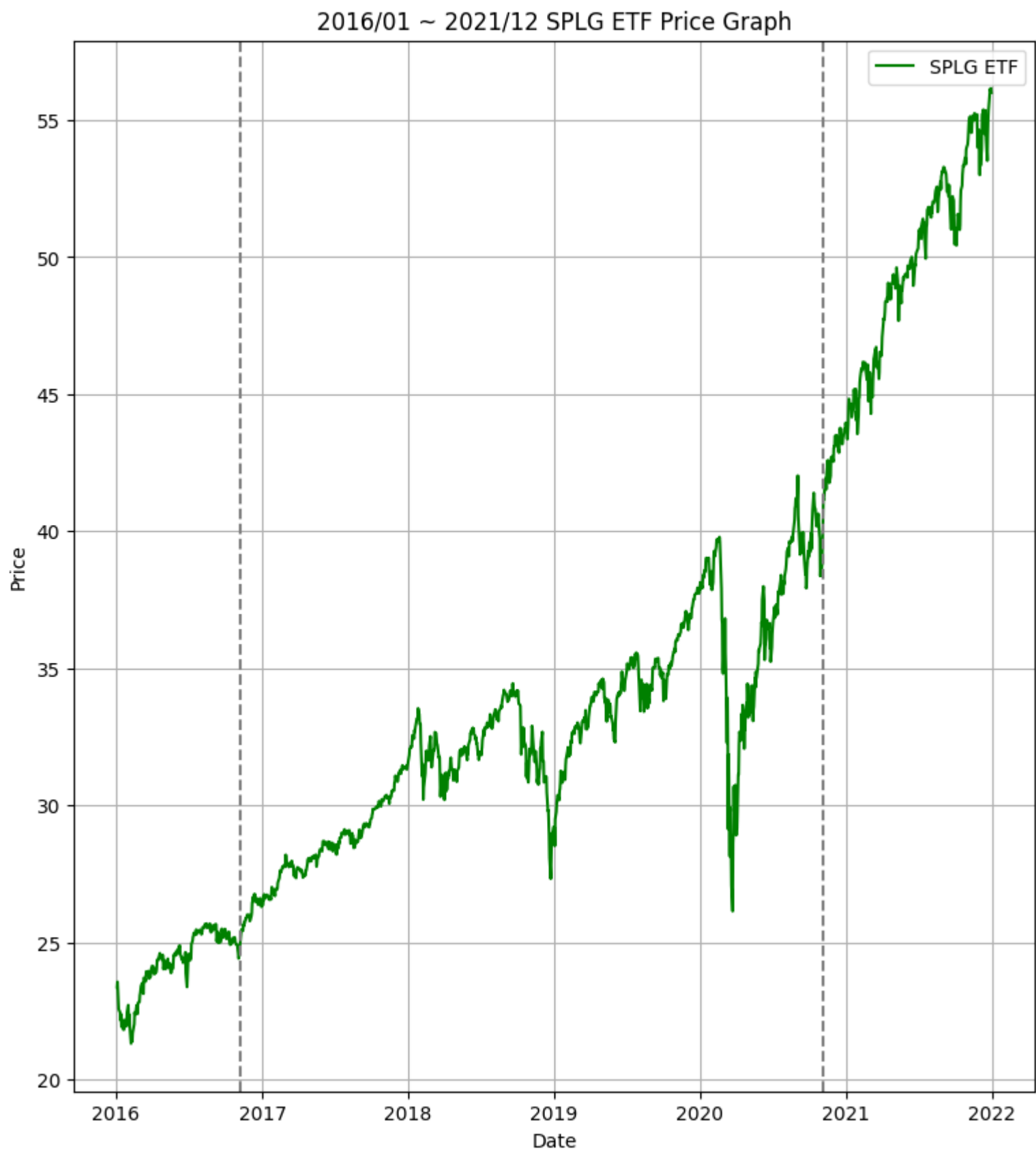
- 선거 결과 요약

대통령	당선일	결과
도널드 트럼프	2016년 11월 8일	<u>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u>
조 바이든	2020년 11월 3일	<u>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미합중국 제 46대 대통령에 당선</u>

III. 실험 진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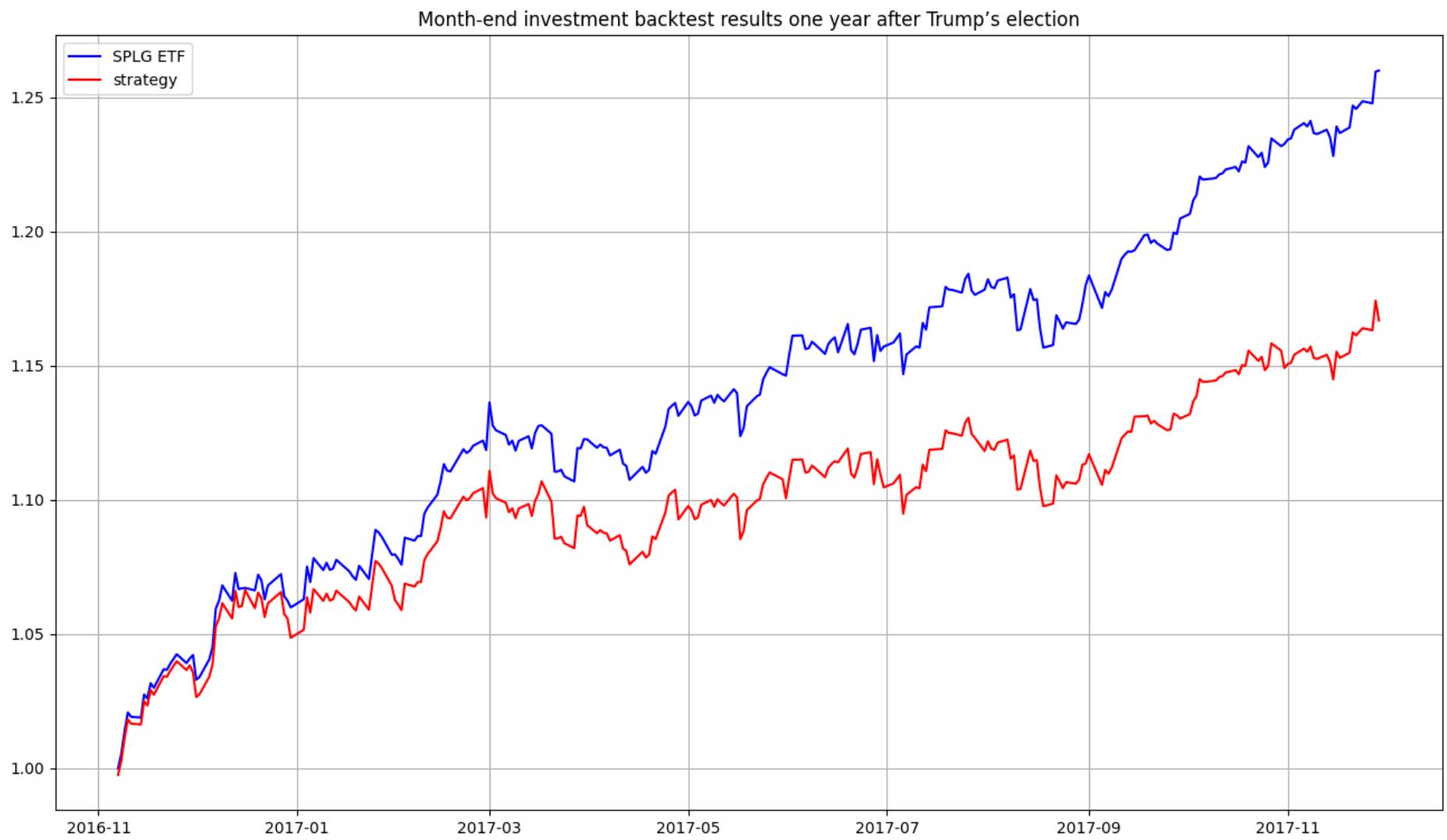
1. 2016/01/01 ~ 2016/11/08(트럼프 당선일) ~ 2020/11/03(바이든 당선일) ~ 2021/12/31 기간의 SPLG 주가 그래프 변화양상 확인

- 회색 점선은 각각 트럼프 당선일, 바이든 당선일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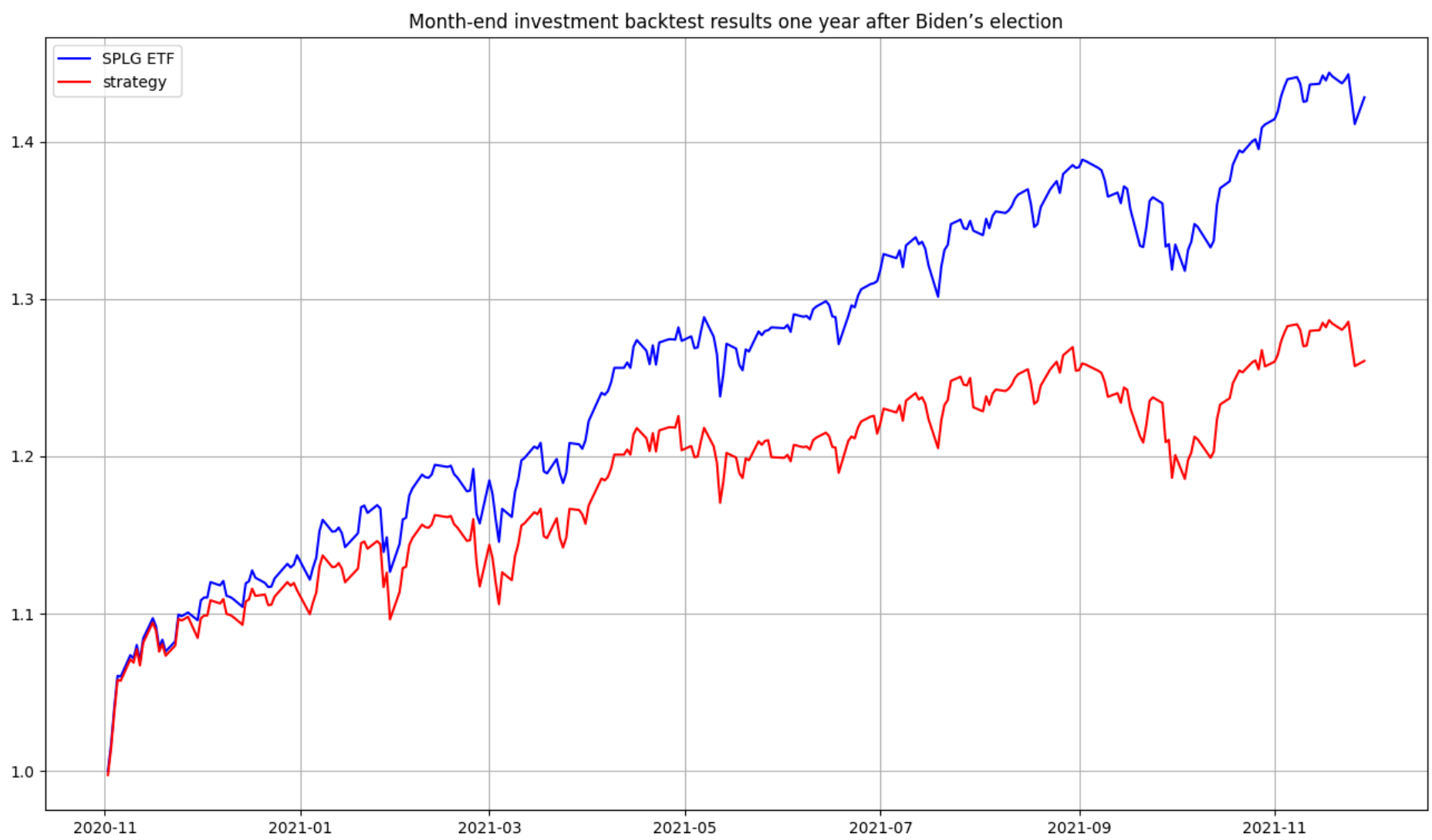
2. 트럼프 당선일 하루 전 ~ 1년 후 / 바이든 당선일 하루 전 ~ 1년 후 S&P500 지수추종 ETF인 SPLG에, 초기투자금 100만원 이후 매월말 10만원씩 투자 시 수익률 및 원금대비 수익금액 계산

- 트럼프 당선 기점 투자 결과 : 총투자금 약 2002달러, 순수익 약 334달러, 전략수익률 약 17%



트럼프 당선 기점 투자 수익률 변화 그래프

- 바이든 당선 기점 투자 결과 : 총투자금 약 2042달러, 순수익 약 532 달러, **전략수익률 약 26%**



바이든 당선 기점 투자 수익률 변화 그래프

IV. 요인 분석

1. 트럼프 당선 후 주가변동 요인

reference : <https://www.schroders.com/ko-kr/kr/institutional/insights/one-year-of-president-trump-the-impact-on-markets/>

- 트럼프 정권이 기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법인세 감세 정책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다. 2016년 11월 8일 대선 이후, 미국 증시는 약 22%의 상승을 기록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증시는 MSCI World 지수 기준 전년대비 약 21%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 기업 옹호적 정책 제안 내용
 - 법인세 인하
 - 본국송금에 대한 세액 감면 -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지출
 - 금융 규제 완화
- 트럼프에 대한 투자로 증시는 선거 직후 가장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감세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
 -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 증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이 조성된 환경 등이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였다.
- (TMI) 트럼프가 과거 대선서 유리한 국면을 맞을 때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와 IT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무역 장벽에 덜 민감한 산업이다.

반면 자동차주, 기계장비주 등의 수출위주 기업은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했다. 따라서 약세는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특히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바이든 당선 후 주가변동 요인

reference :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15>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반 증시 성적표는 70여년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자신의 성과강조를 위해 증시 상승률을 자주 애용했던 트럼프 시기 상승률을 뛰어넘은것은 물론 1950년대 이후 취임 후 100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던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상승률도 앞질렀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시 성적표가 뛰어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2020년 3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주식시장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으나, 이후 백신이 개발되면서 경제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바이든이 취임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이미 바이든 취임 전부터 경기부양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연준은 역사상 가장 느슨한 통화정책을 이어오고 있었다. 여기에 얹어서 바이든 취임 후 **코로나19관련 부양책**을 비롯해 **인프라 투자법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더없이 긍정적인 증시 환경**이 펼쳐졌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분석이다.
-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 덕분에 하루 약 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아왔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경제지표를 타 국가들에 비해 긍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미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강화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보는 평가이다.

V. '24 대선 결과에 따른 S&P500 주가변화 예측 관련자료

개요 : 역대 미 대선에서 승자가 어느 당 후보인지에 따라 대표 주가지수 수익률을 비교분석하는 자료들이 많았다.

1. reference : <https://www.mk.co.kr/news/stock/11092740> 기사글 정리

대선 후에는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수익률이 공화당 후보 당선 시보다 더 높았다.

대선 후 3개월 S&P500 수익률은 민주당이 평균 4.2%, 공화당이 평균 3.9%로 집계됐으며

대선 후 6개월 S&P500 수익률은 민주당이 평균 5.4%, 공화당이 평균 0.1%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통계에서 민주당 우세를 이끈 것은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2020 당선 후 S&P500 3개월간 / 6개월간 수익률이 각각 13.6% / 12.6%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는 글로벌 주가지수 및 미국 주요지수가 부진했고, 선거 이후에는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대선 전에는 정책에 따른 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2. reference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1776> 기사글 정리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법인세율 조정 이후 고소득층 중심의 개인소득세율 인상을 구체화한 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식시장에서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증세 공약 현실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해리스 후보의 법인세율 인상안 현실화 가능성이 작지 않으며, 법인세율이 7%포인트(p) 상승 시 S&P500 기업의 순이익은 약 5% 감소할 수 있다.”(KB증권 김일혁 연구원)

시장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으며, 민주당 / 공화당이 각각 추진 중인 증세 / 감세 정책은 모두 한 정당이 대권과 의회를 모두 장악했을 때 현실화될 수 있다.

VI. 실제 투자 활용가능성 및 총평

미국 대선은 S&P500 지수의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당시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의 경기부양책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대선 이벤트는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 또는 급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핵심이다.

SPLG ETF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저비용 ETF로,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등락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바이든 당선 후 SPLG ETF의 백테스팅 결과 각각 17%와 26%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장기적으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특히 대선 직후 1년간의 투자 성과를 고려할 때, SPLG와 같은 인덱스 ETF에 대한 투자는 액티브 펀드와 비교했을 때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대선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의 실현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후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 대선은 S&P500 지수와 연관된 투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선 직후 시장의 반응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크게 좌우되며, SPLG ETF를 통한 S&P500 지수 추종 전략은 알려진대로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따른 섹터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